

고유정 ‘정당방위’ 주장하나

“우발적 범행”... 오른손 상처 증거보전 신청 지검, 법정공방 대비 검사 4명 ‘전담팀’ 꾸리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해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고유정(36)이 앞으로 펼쳐질 법정 공방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고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법원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증거보전은 재판을 앞두고 법정에 제시할 증거가 사라질 것을 우려해 미리 법원이 증거 조사를 진행해 보존하는 절차다.

고유정 사건은 강력사건을 전담하는 형사 1부에 배당됐으며,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총 4명의 검사가 투입됐다. 이는 검사 3명이 투입돼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제주 보육교사 살인 사건’에 비해 1명이 더 많은 것이다.

고씨가 재판을 받게 되는 시점도 이달 중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고씨의 구속 만료 기한은 오는 21일까지인데, 수사가 더 필요해 연장 신청을

하더라도 7월 1일까지는 검찰에서 기소를 해야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씨가 주장하는 ‘우발적 범행’은 신빙성이 떨어져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범행 동기와 방법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등에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고씨가 범행 전 ‘졸피뎀’을 구입했고, 피해자 혈흔에서 이 성분이 검출된 만큼 ‘의의적 투약’ 여부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해양경찰이 13일 전남 완도군 고금면 가두리양식장 인근 해상에서 의심 물체가 담긴 비닐봉지를 찾고 있다. 해경은 ‘고유정 사건’과 관련성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완도해경 제공

■ 어제 보육교사 살인사건 5차 공판

검찰 “사회서 격리”...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검찰청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박모(49)씨의 5차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한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공개 명령도 요구했다.

피고인이 강간 살인범이라는 사실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가정도 세워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하지만 수집된 미세증거와 범인의 동선은 우연이라고 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것이 실제적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26살 여성을 강간하려다 실패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차가운 배수로에 방치했다”며 “사회에서 격리시

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내려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예정된 피고인 최후 진술은 변호인 측이 방어권 보장을 위한 추가 기일을 요구하면서 오는 27일로 결심공판은 미뤄졌다. 박씨에 대한 선고는 구속 만기일인 7월 14일 이전에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택시기사였던 박씨는 지난 2009년 2월 1일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고내봉 인근 도로에서 승객인 보육교사 이모(당시 26세·여)씨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사체유기 부분은 공소시효(2016년 1월 31일)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송은범기자

양용창 전 조합장 무죄 확정

하나로마트에 입점한 점포 관계자인 50대 여성을 자신의 과수원 내 건물

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양용창 제주시농협 조합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제3부는 피감독자 간음 혐의와 향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양 전 조합장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송은범기자



감자 수확 분주한 농촌 13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한 농경지에서 농민들이 감자 수확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를 국제보호지역 관리·연구 허브로”

유네스코 사무국 글로벌 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11월 총회서 결정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카테고리2센터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 센터’ (이하 센터) 유치에 위한 타당성 조사가 본격 진행됐다.

제주도가 센터 유치를 통해 전세계의 IDA(국제개발협회)와 MIDA(투자개발청)의 현장 관리자와 국가 및 지역의 관련 정책담당자들을 훈련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국제적 허브’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유네스코 사무국이 이날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제주에서 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센터는 전세계 국제보호지역 관리자의 역량 강화와 보호지역 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유치 설립을 추진하는 기구다.

특히 센터는 모든 4대 IDA 제도

에 공통되는 이슈들에 대응하는 최초의 카테고리 2센터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제주도와 환경부는 센터 설립 의지와 역량을 평가 받게 된다.

국제보호지역 관련 전문가인 한춘리 재해위험통합연구(IRDR) 사무총장, 나타라잔 이쉬와란 국제자연문화유산공간기술센터(HIST) 조빙교수가 타당성 조사관으로 참여하며, 마리 프르차로바 유네스코 생태지구과학 아시아태평양 담당관이 동행한다.

타당성 조사 후에는 하반기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 센터 설립안이 상정된다. 최종 승인 여부는 11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결정된다.

제주도는 ‘국제보호지역 관리 허브로서의 제주도’와 ‘자연환경분야의 선도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목표

로 센터를 유지하면 유네스코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보호지역 이해관계자에 대한 체계적·통합적 역량강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국제보호지역의 질적 관리 향상을 위한 싱크탱크(think-tank)의 역할과 보호지역에 대한 보전 및 현명한 이용(wise use),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모를 위한 브랜딩(branding) 전략 등 우수사례 공유·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센터 설립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피력할 것”이라며 “다중 국제보호지역으로서 제주도가 쌓은 노하우와 관리역량을 개도국에 전파할 수 있도록 국제보호지역에 대한 선도적인 환경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소진기자

대정농공단지서 20대 근로자 감전사

20대 근로자가 산업 현장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오후 8시46분쯤 서귀포시 대정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근로자 A(24)씨가 기계 수리 도중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

급대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으며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숨진 A씨는 올해 2월부터 해당 업체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돼지 등의 배를 분쇄해 사료를 만드는 작업을 담당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일에는 A씨 등 2명이 야간작업을 벌였고, 분쇄 기계를 점검하던 중 감전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증거를 통해 안전관리와 안전장비 착용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아울러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진정한 흙의 보약 “페르카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비료와 흙과 수분반응에 의한 농약성분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잘룩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파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페르카의 제반효과

- 완효적 질소비 효과
- 선충 밀도의 저하
- 토양소독 효과
- 유기물의 부속 촉진
- 식효효과
- 토양곰팡이 살균 방제효과
- 잡초의 경감
- 가축의 기생충 방제
- 토양의 비옥화
- 토양 미생물 활성화

사용 기준 25K - 1포 (100~400평)사용

취급 품목 4중복비, 유기질비료(친환경제품),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행비료

관용 염분 시비용 맥반석, 게르마늄, 황금수, 흙향기

직원구함 비료판매 유 경험자년 4천이상 보장, PC가능자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방수

- 폴리우레아방수 -

- ◆ 지붕, 옥상 방수 및 도장공사
- ◆ 축사, 냉동창고, 양식장, 수영장 방수
- ◆ 저수조, 하수처리장 내·외벽 방수
- ◆ 물탱크, 원유저장탱크, 주유소 바닥 코팅
- ◆ 수도관, 가스관 등 각종 강관 코팅
- ◆ 철재 부식 코팅, 아파트 주차장 바닥
- ◆ 산업용시설물, 발전소, 학교, 관공서 옥상
- ◆ 구조물의 모든 부위 방수, 콘크리트 부식 방지
- ◆ SMC, FRP 물탱크 제작, 수리

A/S기간 : 3년 보장

주식회사 내쇼날건업

내 쇼 날 FRP 페인트 총판

- 방수, 도장 전문건설업, 여성기업 -

TEL : 064-727-9800 H.P : 010-3699-4850
FAX : 064-753-8850 010-3211-0218

national90@naver.com

주간농업농촌소식

주요 농작물 관리요령 및 병해충 방제정보를 안내합니다.

- 노지감귤: 궤양병, 굼영애, 검은점무늬병, 깍지벌레 등 병해충 방제
 - 전년도 궤양병 발생 과정은 예방을 위해 구리제 살포
 - 굼영애는 적기방제가 중요 반드시 예방 후 약제 살포
 - 검은점무늬병은 비가 오기 전 약제 살포하는 것이 효과가 높음 또한 죽은 가지를 제거해 주는 것도 예방 효과 높음
- 만감류: 온도 및 물관리, 굼영애, 진딧물, 귤나무방 등 병해충방제
 - 보조가은 만감류는 기형과 등 비상품과 적과
 - 고온 시 약제살포 피하고 약제 혼용사용 시 가능여부 확인
 - 물관리: 3-5일 간격 15-20분 정도 관수를 하되 대기 중 습도가 높지 않도록 관수시기 및 관수량 결정
- 키위: 열매썩기, 세균성꽃색병, 잿빛곰팡이병 등 병해충방제
 - 아래로 향한 가지와 겹쳐진 가지, 꼬인 가지는 즉시 제거
 - 5월 중순에서 7월 중순까지 2회 이상 가지유인 실시
 - 6월부터 9월까지 3-4회 결과지 순지르기 실시
- 마늘: 썩음병 마늘은 바람이 통하는 그늘에서 건조하여 부패 방지
- 고추: 진딧물 등 병해충 방제
 - 지주대는 120cm 이상을 사용하고 2-3분지에서 고정 후 자람에 따라 2-3회 추가 고정
- 노지수박 및 단호박: 줄기 유인작업 실시
- 참깨: 적기파종 - 5월 하순 - 6월 하순, 파종량 1kg/10a
 - 밑비료: 질소 8 - 인산 8 - 가리 6kg/10a
- 콩: 적기파종 - 6월 중-하순, 파종량 5kg/10 내외
 - 콩 전용복비 기준 비화산회토양 50kg, 화산회토양 75kg/10a 내외
 - 재초제 토양처리제는 파종 후 3일 이내 살포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성과(760-7552)